



주요 소식

-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완성,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그린다
- '행정수도 세종' 본격화에 맞춰 중앙공원 2단계 설계 재착수
- 행정수도 문화 심장 국립박물관단지, 5단계 박물관 순차 개관
- 행복청,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완성,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나온다

-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경쟁 가속
-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당선작 발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됩니다. 주택 4,740호가 착공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완료됩니다. 공동캠퍼스는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으로 정원 3천여 명 규모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복청은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정주여건과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키워, 행복도시를 균형 발전을 이끄는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 '행정수도 세종' 도약 기반 완성

-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안 마련
-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 우선 착공
-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차질 없는 지원

먼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국민 2만7천여 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15년 12월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상반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로운 건축설계공모 지침이 마련되도록 협력하고, 건축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을 신속히 추진해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에 들어설 주요 시설에 대한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합니다.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능적 기반도 다집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세종경찰청은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세종지방법원은 상반기 설계공모 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합니다.





2. 균형발전을 이끄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주택 4,740 호 착공
-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8번째 금강횡단교량 기본계획 수립

행복도시를 집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6년에는 올해보다 1,315호 늘어난 4,740호의 주택을 착공합니다. 합강동과 다솜동에 분양주택 4,225호를 집중 공급해 5생활권 조성을 본격화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현동에 공무원 임대주택 515호를 착공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도 속속 문을 엽니다. 산울동과 합강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각각 6월과 11월 준공되며, 아이들과 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형 과학문화공간을 제공할 합강동 과학문화센터도 10월 착공합니다.

전국 최고 공원녹지율 친환경도시의 정체성도 지켜나갑니다. 국지도 96호선 통과 여부 등이 결정됨에 따라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 설계를 다시 시작해, 국가상징구역 및 인접시설과 연계된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들어나갈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가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 2시간’ 목표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 시민 요구를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합니다. 행복도시-공주 BRT를 연말까지 준공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련 교통 연계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쪽을 잇는 8번째 금강횡단교량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면 인근 도로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교통 개선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3. 지속 성장하는 ‘모범 활력도시’ 건설

-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개교, 고려대 착공
- 국립박물관단지 범부처 협의체 구성, 도시건축박물관 준공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주택 착공, 조성 본격화

공동캠퍼스는 내년 3월에 정원 290명의 충남대 의대가 개교 하면서 임대형 캠퍼스 5개 대학의 입주가 완료됩니다. 올해 12월 착공할 충남대(정원 800명)와 공주대(정원 599명)에 이어 내년 말 까지 고려대(정원 790명)가 착공하면서 분양형 캠퍼스 조성도 본격화됩니다. 또한 입주 의향이 있는 국내외 유력대학을 적극 유치해 공동캠퍼스가 혁신적인 공유·융합형 대학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행정수도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이 7월 준공되고,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연내 착공합니다. 어린이박물관에는 체험형 대형 클라이머 등 다채로운 전시를 시도합니다.

아울러 합강동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섭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통합 배송 등 혁신적 스마트서비스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담기고,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선도지구 내 주택이 착공됩니다.

행복청은 “2026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국가상징구역이 본격적으로 조성을 시작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는, 행정수도 세종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행복청의 20년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변화를 만드는 행복도시 스마트시티의 面面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스마트시티 및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간 교통·안전·생활 편의 등 일상 전반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 연말부터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로서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간 행복청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스마트시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교통·방범 CCTV, 차량 검지기, 노변기지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구축하여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 미래형 플랫폼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스마트시티는 교통혼잡과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첨단기술로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시민참여 등 체감형 서비스 빠르게 늘어



안전 분야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스마트시티에서도 최고 역점사업으로 꼽힙니다. 시에 기반한 '방범 CCTV'는 기절·낙상·비정상적인 도로 위 보행과 같은 응급 상황은 물론, 폭행·몸싸움, 이상접근 패턴 및 배회, 흥기를 사용한 폭력 징후, 방화 의심 행동 등 범죄 위급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즉시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소방으로도 연계합니다. 여기에 더해 5-1 생활권 합감동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생활권에는 기존 행복도시 생활권보다 방범 CCTV의 저장용량을 확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영상의 보관 기간이 확대되고 향후 CCTV 추가 설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사회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지고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생활 속 편의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은 Mas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의 교통)의 핵심 수단이자, 이동패턴 분석·환승 정책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교통체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의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실시간 도착 정보 제공(BIT, Bus Information Terminal)뿐만 아니라 차내 혼잡도(승객 밀집도) 정보도 추가로 제공되어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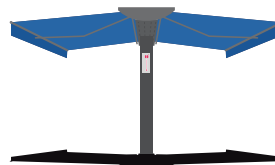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기여하는 리빙랩 사업*을 통해 스마트정류장, 스마트재활용, 스마트폴 등

현장 중심 혁신 서비스가 도입되어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 스마트정류장 > 기존 서비스(실시간 도착 안내) + 냉난방시설 + 무선충전 등
< 스마트재활용 > 재활용품 수거함 QR코드 스캔 → 지역화폐(여민전)로 보상 제공
< 스마트폴 > 방범 CCTV + 스마트 그늘막 + 도시환경정보 수집센서 등

또한, 그 간 생활권별로 구축했던 통신망 외에 행복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신망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향후 신규 서비스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기존 통신망의 장애 발생 시에도 여유 코어를 활용해 도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 될 수 있어 플랫폼 도시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미리 만나는 미래 도시 모델’

행복도시 5-1생활권 합강동에 조성될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로서,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최첨단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를 집약하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략 2.74km²(83만평)의 부지에 계획인구 2만 4천여 명(10,209세대) 규모로 2029년에는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 운영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는 ‘사람 중심의 플랫폼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곳 세종 국가시범도시에는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에너지·환경 등 일상생활에 직접 닿아 있는 7대 영역에서 특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도로,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 대처, 스마트 학습공간 등 공공성이 큰 분야는 LH·세종시·세종시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이 외 공유차 기반구역, 자율주행셔틀,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스마트 통합 배송, 미래 금융 등 민간의 전문성과 서비스 혁신, 기술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SPC*가 맡는 구조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성이 접목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의 스마트 인프라가 만나 혁신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를 선도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정부·지자체·민간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는 전담법인) :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LH·세종시 공공 20% + LG CNS 등 민간 80%로 구성

행복청은 세종 국가시범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조속히 승인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교통·방범·통신망 등 스마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도에 오르게 됩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스마트시티는 최신기술의 단순 전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행복을 직접 잇는 ‘다리’ 역할”이라면서 “더 나아가 행복도시가 우리 사회가 염원해 온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AI 기반의 미래도시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감도



세종 국가시범도시 상징광장 조감도

내년 행복청 예산 2,904억 원 확정, '25년 예산 2,205억 원 대비 32% 증액

- 국가상징구역 조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본격 추진
- 공동캠퍼스 운영, 세종지방법원 등 정부안 대비 16억 원 증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2,904억 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도 예산 2,205억 원 보다 699억 원(3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2,888억 원 대비 약 1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출연금 9억 원과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으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행정수도 추진과정에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비용(4억원) 등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에는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시설 건설에 209억 원, 세종경찰청 청사 등 국가·지방 행정시설 건립에 633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운영에 603억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복청은 “현재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고,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본격화에 맞춰 중앙공원 2단계 설계 재착수

-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마지막 퍼즐, '유종(有終)의 미(美)' 기대

국가상징구역(S-1생) 조성 일정에 맞춰 그동안 중단되었던 중앙공원 2단계(이하 “중앙공원”) 조성을 재착수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주대 김이형 교수, 배재대 이시영 교수, 서울대 성종상 교수, HEA 백종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착수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간 중앙공원 사업은 인근의 도시계획이 미확정되어 설계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국가상징구역 및 국지도 96호선 등의 계획 방향성이 정해짐에 따라 설계 재착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중앙공원은 2026~2027년 설계, 2028~2030년 시공을 통해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앙공원과 함께 건설되는 국지도 96호선은 중앙공원과 금강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경관도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앙공원은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도시 품격의 한 단계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원의 품질 뿐만

아니라, 환경적 생태성, 방문자 편의성,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매력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조경·생태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열린 행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공원은 오색경관 숲, 도시축제정원, 도시생태숲, 공생의 들 등 다양한 시설을 구상하고 있으나, 열린 행정을 통해 설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강과 장남들의 생태·역사성을 매개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상하고 인근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 및 국립박물관단지 등 국가 주요시설과 연계성을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조성할 것입니다.

행복청은 중앙공원을 국가상징구역, 국립수목원, 국립박물관단지 등과 조화롭게 어울려 국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문화 심장 국립박물관단지, 5개 박물관 순차 개관

- 행복청, 세종 국립박물관단지의 단계별 건립 추진현황 발표
- '23.12월 개관한 첫 주자 어린이박물관, 누적 32만 명 관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의 핵심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2012년 행복청,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국가유산청 5개 기관이 국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국립박물관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단지 전체의 컨셉을 정했으며, 개별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각각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박물관은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건축박물관 등 총 5개의 개별박물관이 공사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국립박물관단지 내 최초로 착공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12월 개관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시 및 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 증진 및 미래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말까지 누적 관람객 약 32만 3천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건축 문화활동의 허브로서 도시·건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전시를 통해 연구거점 기능을 수행할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2024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7월 준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디자인을 전시·보관하는 국립디자인박물관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자원과 문화유산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6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록유산과 대표 기록물을 경험할 수 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은 2025년 2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 후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의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31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청은 설계 및 건립과정에서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과 조화로운 연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조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

추가로, 개별박물관의 개관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가 성공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 보강을 위해 각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원활한 개관을 위해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와 공동발의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는 국립박물관단지 및 개별박물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조직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케데헌 열풍 등으로 우리나라 박물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립박물관단지가 행정수도의 핵심 문화시설이자 K-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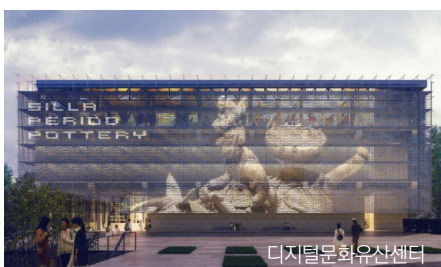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통합시설(통합수장고, 통합운영지원센터)

행복청,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 세종세무서, 혁신적 디자인 및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으로 최고 영예 안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세종세무서가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건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품격 높은 공공건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준공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혁신적 조성 아이디어, 사업 참여자 간 협업과 공공성 및 디자인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2021년 6월 준공된 세종세무서는 기존 수직적인 청사 배치를 벗어나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한 저층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업무·민원·휴게 기능을 분산 배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 동선 계획과 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외부 공간을

구현한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인 행복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설계·시공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참여자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완성도를 한층 높인 점도 주요 선정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수상에서 행복청 윤보섭 사무관이 우수 기여자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세종세무서 설계를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와 시공을 담당한 '삼인종합건축(주)'도 대상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세무서의 대상 수상은 관계기관과 참여자 모두의 협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공공건축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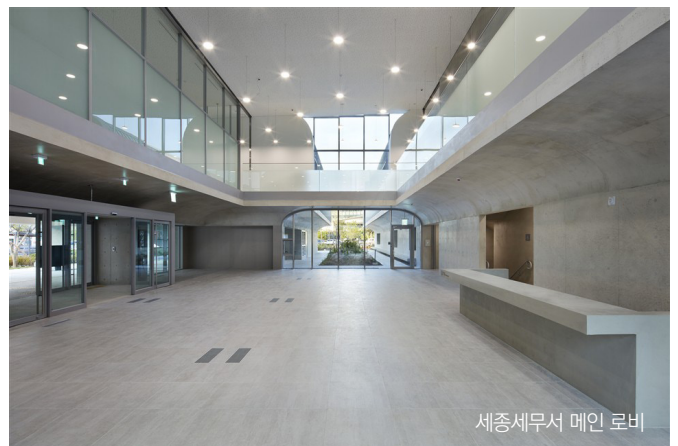
세종세무서, 경관(축단)



세종세무서 야간 경관



세종세무서 측면 출입구



세종세무서 메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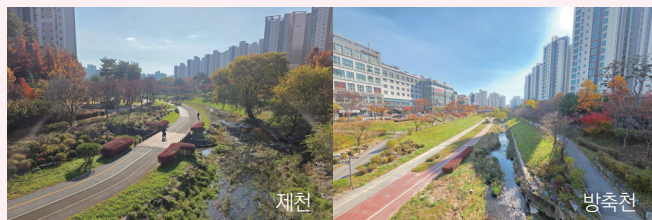
행복도시에서 '코끼리'를 볼 수 있어요!

17기 행복기자단_김진홍 기자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러닝코스 #코끼리런 #원수산 #어서각 #북합커뮤니티센터 #복컴 #행복기자단 #국토부장관상 #산책로 #행복기자단

요즘 대세인 운동, 러닝! 행복도시 러닝코스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올해 1천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러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야외에서도, 각종 영상들에서도 러닝하는 시민 또는
장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끼리런 등과 다리 부분을 지나다 보면
아름다운 하천들을 만납니다. 제천과 방축천입니다.

행복도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제천과 방축천은
대표적인 수변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천과 방축천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과 문화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음악 분수, 테마공원, 자연 생태 학습장, 산책로 등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코끼리런을 즐기는 매력 포인트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GPS를 활용해 달리는 경로를 지도 위에 그림처럼 그리는
'아트런'이 유행하는 만큼 행복도시 러닝 코스 '코끼리런'을
다니며 볼 수 있는 행복청 명소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청이 추천하는 행복도시 러닝코스 '코끼리런'은
약 17km 구간으로 가락마을에서 제천과 방축천을 지나
원수산까지 잇는 거대한 코끼리 모양의 코스입니다.
코스가 꽤 길어 초급자에게는 난도가 있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크고
행복도시 여러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코끼리런 꼬리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행복도시 명소는 원수산입니다.

해발 약 251m 원수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산이자
시민들의 뒷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산봉우리가 뾰족한 붓끝 모양과
같다고 해서 문필봉이라 불리기도 하죠.

원수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어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한 원수산 자락에 존재한 송덕사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임현회를 비롯한 전 우, 이재구, 김준영, 이유홍,
조홍순, 임현찬 등 7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컴'이라 불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주민 소통 공간이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능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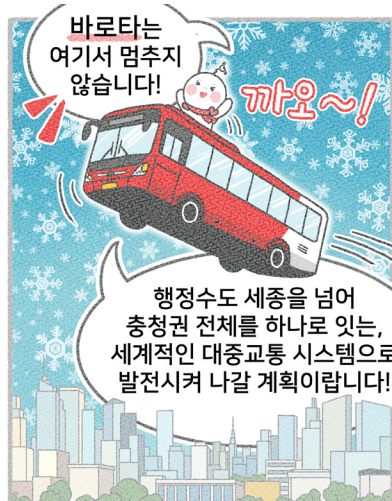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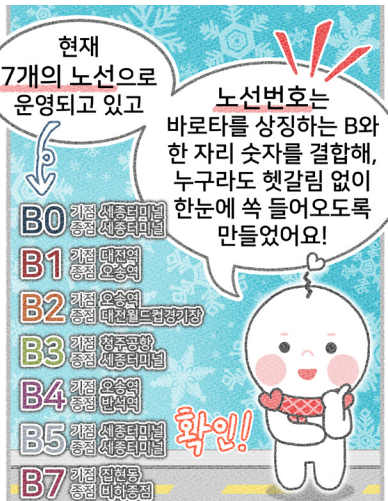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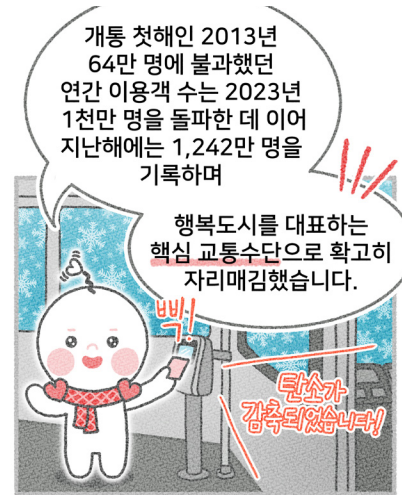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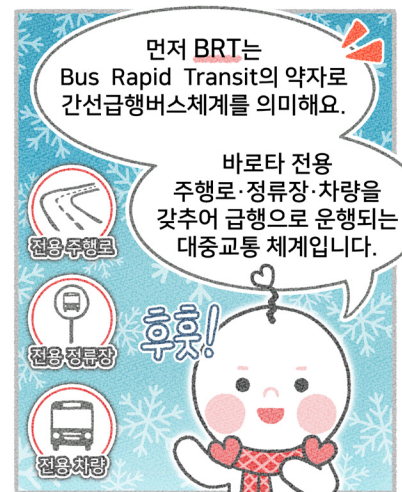
특히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한글 자음 'ㄷ'과 'ㄹ'을 활용한
한글 디자인 콘셉트인 '두루누리'를 건축물 외관에 반영했습니다.
행복도시에서도 러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런뿐만 아니라 하천, 트레킹, 둘레길 등 행복도시
곳곳을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코스들이 존재합니다.
달리면서 행복도시를 누벼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알고 타자 바로타, BRT

17기 행복기자단_나지혜 기자

전용 주행로, 정류장, 차량을 갖추어 급행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바로타, BRT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바로타 #BRT #교통수단 #대중교통 #행복도시 #행복기자단



행복이와 한글교시(12교시)



1 중도에서 성의 없이 그만두는 모양

- 반둥건둥 ✓
- 빈둥빈둥

2 폭 익어서 무른 모양

- 하물하물 ✓
- 푸송푸송



숙제코너 속담 퀴즈

- 1 나그네 보내고 ○○한다
- 2 새해 못할 ○○ 있으라
- 3 감기는 ○○○○에 내려앉는다

11교시 숙제코너 정답

- 1번 : 바늘허리
- 2번 : 깨
- 3번 : 상전

행복청,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행복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 억 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도 예산 2,205억 원 보다
699억 원(31.7%) 증가한 규모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6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1. 일상 생활 중에

점검하고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하세요



2.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대비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난’ 앱(스마트폰)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산사태 발생 시

대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4. 산사태 발생 후

신고하세요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국민행동요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됩니다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및 패서인
등산로 입산 금지



산림 내에서
라이터, 담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예초기, 용접
작업 시 산불대역 감구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철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
살수도 저물 대상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2025 농림어업 총조사

11.20.~12.22.

인터넷 조사 | 11.20.~12.10.
방문 면접조사 | 12.01.~12.22.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
홈페이지 | affensus.go.kr
콜 센터 | 1080-360-2025 (무료) *오전9시~오후6시 (주말포함)



한파 6대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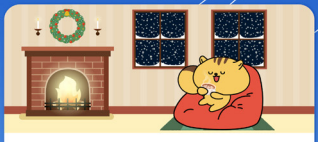
이렇게 행동하세요!



한파행동요령



기상 상황 확인하기



야외활동 자제



따뜻한 장소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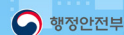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관 동파예방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